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양인성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 허창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 지부장(왼쪽부터)이 15일 병원 8층 81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개소식을 갖고 있다.

간호 통합서비스 병동 개소

이대서울병원, 8층 81병동 42병상 환자 경제적 부담 덜고 전문적 간호

이대서울병원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

15일 이대서울병원 81병동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선영 전략기획본부장, 허창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 지부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이현국 진료부원장, 이은화 간호부원장 등 의료원 및 병원 관계자들과 양인성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이 참석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적정 간호 인력 배치를 통한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과 병동환경 개선 및 환자안전관리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의미하고,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를 제한하

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된다.

이용 금액은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하고 보다 전문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병원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

이대서울병원은 8층 81병동에 42병상 규모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간호사 25명, 간호조무사 7명, 병동지원인력 3명 등 총 35명의 간호 인력으로 병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비뇨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나, 다른 진료과도 의료진이 판단 하에 이용이 가능하다. 환자 혹은 보호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에 관한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세경 기자 seilee@

LF 챔피언, 유스 공략 통했다

코엑스몰점 오픈 당일 매출 1위

〈유스패션〉

美·유럽 등 글로벌 라인 전개 70평대 매장, 오픈일 1100명 방문 인기 아이템 1주일도 안돼 완판

생활문화기업 LF가 지난1일 서울 코엑스몰에 오픈한 글로벌 스포츠·캐주얼 브랜드 ‘챔피언’의 공식 글로벌 브랜드 스토어가 오픈 한 지 2주 만에 1만 명이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오픈 당일에는 코엑스몰 유스패션 카테고리서 매출 순위 1위에 올랐다.

10~20대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고객 충성도가 높은 국내의 브랜드들이 즐비한 코엑스몰 유스패션군에서 매장 오픈 당일부터 매출 카테고리 1위에 바로 등극한 건 국내 유통업계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현재 전 세계 패션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스트리트캐주얼 트렌드와 이 트렌드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인 챔피언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LF는 국내 유스(Youth) 패션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글로벌 대표 스포츠·캐주얼 브랜드인 챔피언의 국내 전개를 결정했으며, 지난달 LF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LF몰에 입점, 기존 국내 시장에 주로 유통됐던 아시아 라인(ASIA Line)은 물론 미국(US Line)과 유럽 라인(EU Line) 등 챔피언



챔피언 글로벌 스토어 서울 코엑스몰점

의 글로벌 라인 전체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지난 1일, 70평대의 매장 규모로 서울 코엑스몰에 정식 오픈한 챔피언의 글로벌 스토어는 브랜드의 미국, 아시아, 유럽 라인의 다양한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챔피언 공식 글로벌 브랜드 스토어로서 지니는 장점 때문에 코로나19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당일 1100여 명의 방문 고객들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이후로도, 연일 마니아 고객은 물론 가족·연인 단위 고객 등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 수백 여명이 방문했다.

특히, 챔피언의 인기아이템인 그래픽 반팔 티셔츠와 챔피언 브랜드의 ‘C’ 로고를 배색한 크루넥 반팔 티셔츠

등의 제품들은 매장 오픈 1주일도 안 돼 완판될 정도로 판매 호조를 보였으며 EU(유럽), ASIA(아시아), US(미국) 라인 제품들이 고르게 우수한 판매 반응을 보인다.

챔피언의 글로벌 브랜드 스토어 코엑스몰점 철조망, 파이프, 배수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스트리트 감성의 매장 디자인으로 브랜드의 핵심 고객층인 10대의 감성에 깊이 다가가는 노력을 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1919년 탄생한 챔피언 브랜드의 오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각종 사인과 소품들이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어 이를 찾아보는 재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제약바이오 협 중소 제약사에 특허 컨설팅 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2020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개별 제약사 별로 적합한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의약품 또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취지다.

신청 자격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기업 중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 ▲ 해당 사업에 따른 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 컨설팅이 필요한 제약기업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협약을 체결하고 5개월간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 총 28개의 기업이 컨설팅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품목허가 획득 4건, 우선판매 품목허가권 획득 2건, 특허출원 및 등재준비 9건, 특허심판 청구 12건, 해외 진출전략 구체화 6건, 임상 및 비임상 시험 진행 2건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이세경 기자

오희, 커버력·보습 두토끼 잡은 ‘얼티밋쿠션’

시그니처 3D 플라워 디자인 독자적 얼티밋 커버TM 기술 백합수 보습 효과로 촉촉하게

LG생활건강 입체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오희 얼티밋 커버 쿠션 모이스처 플라워 가든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오희에서 선보인 이번 ‘얼티밋 커버 쿠션 모이스처 플라워 가든 에디션’은 오희만의 시그니처인 3D 플라워 디자인에 화려하게 반짝이는 꽃 수술을 장식해 화사하면서도 페미닌한 무드를 구현했다.

은은하게 빛나는 핑크색 용기 바탕

에 꽃잎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작업해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사랑스러운 분위기와 고급스러움으로 특별함을 더했다.

이번 에디션은 꽃이 만발한 봄의 정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상자에 담겨있어, 보기만 해도 봄이 주는 설렘을 느낄 수 있다.

오희의 인기 제품인 ‘얼티밋 커버 쿠션 모이스처’는 촉촉한 커버력과 뛰어난 보습감으로 타고난 듯한 촉촉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완성해준다. 오희의 독자적인 얼티밋 커버TM 기술을 적용해 피부를 자연스러우면서도 균일하게 커버해주며, 백합수의 뛰어난 보습 효



오희 얼티밋쿠션 플라워가든 에디션

과와 스킨 컨디셔닝 시스템으로 온종일 촉촉하고 편안한 피부로 가꿔준다.

/조효정 기자

CNP, 4가지 허브로 자연스런 윤기 선사

LG생활건강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CNP에서 피부 진정 성분을 담은 젤 타입의 ‘팜슈티컬 울트라 카밍 젤 크림’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팜슈티컬 울트라 카밍 젤 크림은 CNP의 독자 특허 성분인 CNP 카밍 콤플렉스와 영국 에딘버러의 청정농장에서 재배된 4가지 허브(라벤더·카렌둘라·세이지·야로우)성분을 신선하게 담아낸 슬로우 허브 콤플렉스™를 함유한 포물러가 촉촉함과 자연스러운 윤기를 부여



한다. 민감 피부 테스트를 완료해 민감한 피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제품임을 입증받았고 동물성 원료, 미네랄 오일, 합성 색소, 합성 향료, 페녹시 에탄올을 첨가하지 않은 처방을 사용했다.

/조효정 기자

리리코스, 저온공정 기술로 피부 케어

고유 원료 성분과 산소수 결합

아모레퍼시픽의 마린 코스메틱 브랜드 리리코스가 미백기능성 첫 단계 에센스 ‘마린 옥시제니 브라이닝 에센스’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리리코스 ‘마린 옥시제니 브라이팅 에센스’는 바다 숲을 이루는 청정한 힘을 피부에 전달해 생기 있고 맑은 피부로 가꿔주는 산소 에센스다.

핵심 성분인 ‘오세양-포레™’는 바

다 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피롤리나, 갈조류 콤플렉스를 추출해 산소수와 결합한 리리코스 고유의 원료 성분으로, 지친 피부를 맑게 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산소수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저온 공정 기술을 적용해 피부 깊숙한 곳까지 산소를 안정적으로 전달한다. 칙칙해진 피부톤을 산소처럼 투명하게 가꿔주고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리리코스 ‘마린 옥시제니 브라이팅



리리코스 마린 옥시제니 브라이팅 에센스

에센스’는 세안 후 첫 단계에 발라 다음 단계 제품의 효과를 촉진해주는 부스팅 에센스로 기미, 잡티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조효정 기자